

[성 구]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8)



계신총회보

발행처: 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계신총회
주 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229-1
우편번호: 12736
발행인: 이 용 주
편집인: 윤 성 천
전화: 031-768-1980
팩 스: 0303-0944-2936



2025년 10월 01일 (수)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News (Kyesin) • 홈페이지: kyesin.org

제 147호 1

제46차 계신총회 정기총회 개최



2025년 9월 9일(화) 오후 1시에 서울의 명륜교회에서 제 46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총회장 박세덕 목사의 사회로 찬송 301장을 부른 후 가락동부교회 박황우 목사의 기도에 이어서 삼상12:1-25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은퇴'라는 제목으로 강도하여 함께 은혜를 받았다.

서기 남성호 목사가 명찰을 배부한 것으로 확인하여 218명중 148명이 출석하여 개회 성수가 되므로, 회장이 개회됨을 선언했다.

공천위원장 김정경 목사가 공천 결과를 보고하고, 이어서 투표로 임원을 선출하니, 총회장 이용주 목사, 총무 김정경 목사, 서기 남성호 목사, 부서기 오석환 목사, 회계 심웅보 장로, 부회계 박천수 장로가 선출이 되어 신규 임원들이 함께 인사하고 교체가 되었다.

목사 안수 청원은 김배환(가락동부교회), 김현우(명륜교회) 강도사 2명을 청원하여 받기로 하고, 9월 30일 오후 2시에 명륜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강도사 인허 청원은 심기욱(광흥교회)을 청원하여, 총회장 이용주 목사가 서약을 시키고 기도하였다.

모든 회무를 마치고 서기 목사가 46차 회의록을 낭독한 후, 증경 총회장 박세덕 목사의 축도로 총회를 폐회하였다.

이번 46회 계신 정기총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총회원들의 협조 가운데 큰 어려움이나 논쟁이 없이 일찍 그리고 아름답게 잘 마치게 되어 주께 감사를 드린다.

기사 남성호 목사

총회장 인사말



이용주 목사
송탄북부교회

존경하는 총회원들과 총회산하 모든 성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46차 계신총회에서 부족한 종을 총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며 모든 총회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사회 전반이 갈등과 분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교회가 타락하여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성경으로 돌아가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총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단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총회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둘째, 5월과 8월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 중심의 총회를 세우겠습니다.

셋째, 총회 산하 교회학교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도자 재양육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침체된 교회가 회복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총회를 세우기 위해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총회원 여러분,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총회를 세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총회와 총회 산하 모든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회장 이용주 목사

제46차 계신총회 임원소개



총무 김정경 목사
우신교회



총회장 이용주 목사
송탄북부교회



서기 남성호 목사
평강교회



부서기 오석환 목사
당하제일교회



서무서기 석진오 목사
본동교회



회계 심웅보 장로
영화교회



부회계 박천수 장로
상대원교회

광 고

목사안수식

2025년 9월 30 오후 2시 | 명륜교회

임직감사예배

2025년 10월 9일 오전 11시 30분 | 순천평화교회

교역자산기도

2025년 10월 20일 ~ 23일 | 치악산명성수양관

임직감사예배

2025년 10월 26일 저녁 6:30 | 백양교회

사모세미나

2025년 11월 3일 ~ 5일 | 안성사랑의수양관

계신 청년부 운동회 및 축구대회

2025년 11월 15일(토) | 서울중앙고등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청년부 담당 사역자에게 통보하였음)

† 설교



김신득 목사
수지서부교회

서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사 26:3)

바른 성경에는 위의 구절을 “주께서 그의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그가 주님을 의지하여 그의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입니다. 과거 세종대왕이 지은 용비어천가에 보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니 꽃도 좋고 열매도 많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람이 심히 강하게 불었을 때 산에 나무가 뽑힌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상당히 튼튼해 보였으나, 뿌리가 약하여 끝내 견디지 못하고 뽑히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 신앙이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이 견고해야 좋은 꽃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다.

1.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1절)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교만을 누르시고 그들의 성채를 헐어 버리심으로써(사 25장), 이제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은 그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성과 광이 다 무너졌다가 70년 포로 생활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가 유다 땅에서 불리게 된 이유는 그곳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보좌 곧 시온 산과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곳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1-3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하나님의 구원을 시온산에서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노래는 “견고한 성읍”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견고한 성읍은 시온 산, 즉 구원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구원의 세계는 견고한 성읍이요 만세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합니다. 그 성은 그리스도 안이요 생명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견고한 성벽과 외벽이

심지(心志)가 견고한 자

이사야 26:1-7



되어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세상은 심판의 날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크게 임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세상의 견고한 성읍들은 모두 다 허물어져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세우신 그 성읍만은 견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견고한 성읍과 같습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 베푸신 구원은 견고한 성읍과 같이 결코 요동하거나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가로되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지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홍야에서 구원하셨도다”(삼하 22:2-3)

2.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는 자들(2-4절)

하나님께서 구원의 세계의 문을 열고 많은 사람을 그리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첫째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자입니다(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이다”. 이 문은 마음의 문과 영의 문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문을 열고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신(信)은 신실함의 의미로 신실함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라는 뜻입니다. 김현봉牧사는 “우리가 가는 나라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낸다. 낮은 의에서 높은 의로 자라 올라간다. 의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두었다. 의에 의가 믿음이다. 선에 선이 믿음이다. 믿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고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린다. 또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이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말씀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날마다 구원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둘째는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3절).

심령이 하나님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는 자입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속적인 영향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신을 구별하여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한번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 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과 하

가는 실패 당합니다. 옳은 일과 착한 일과 신자 노릇하기로 결심하고 이것이 실행되면 인물이 되고 성자가 되고 신자가 됩니다. 뜻을 세운 자는 마음이 살아있습니다. “입지(立志)하면 마음이 살고, 산 기운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오투기 같이 자꾸 일어난다. 고집은 입지와 다르다. 입지는 높고 착한 일에 뜻을 세워 나가는 것이고, 고집은 옳지 않는 것이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기어코 하여 나가는 것이다. 고집은 망한다. 주일 지키는 것은 입지이고 고집이 아니다.”라고 김현봉 목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8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했는데, 이 두 마음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에스겔 16:30에도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라고 했는데 진리를 한번 붙들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인간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십니다.

셋째는 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입니다(4절).

여호와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반석을 의뢰하는 자는 언제나 견고하고 안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하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데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시 62:1-2).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왕이 세운 금 신상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폴리갑은 AD 80년 경 태어나 AD 150~165년 경 86세로 순교한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를 체포한 로마 군인들은 “황제의 수호신인 튀게 여신에게 맹세하라. 예수를 저주하라.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지난 86년간 주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내게 잘못된 일이란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분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하며 당당하게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써 흔들리지 않으며 순교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에 교회 탄압이 심하였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한 목사와 성도들은 감옥에 끌려가고 순교 당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주

기철 목사가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옥중 기도문을 보면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리지길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 생각은 없고 자기 의지만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친구는 이제 적절히 타협하고 먼 훗날을 기약해서 한결을 물러서자고 합니다.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히 11:38절).

3. 견고한 성읍에 이르는 의인의 길(5-7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구원의 성읍은 영원토록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지만, 교만한 자들이 거주하는 악인의 성읍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교만한 성읍이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에 밟히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4:3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자기 백성의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과 환난을 다 제하시고 감당할 만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의인들이 시온 산에 있는 구원의 성읍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의로움, 곧 정직한 삶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지켜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성읍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십니다. 이 성읍에 들어가는 자들은 신의와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무너지고 성도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우리는 견고한 하나님의 성읍인 줄 알고 의인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논 단

김광호 목사
성산교회

본 내용은 '거룩한 안식일' (아더 핑크 저)의 책 내용을 일부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신앙이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며 다시 일어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소망합니다.

1. 안식일의 영속성

이제 우리는 시대의 마지막에 이른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중요한 주제의 측면에 접근합니다.

1) 기독교 안식일은 구약 성경의 예언에 의해 분명히 예견되었습니다.

즉, 선지자들은 기독교 시대 내내 거룩한 안식일이 영속된 것임을 분명히 암시했습니다. 사 56:3-7 “...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이 유대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첫째, 이것은 예언의 사상에서 그것이 그 일부인 위치에서 분명합니다. 즉, 53장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직후인 54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그 분의 구원이 가까이 움”(56:1)의 계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음 시대에만 이해될 수 있으며(롬 1:16, 17), 모든 건전한 해석자들이 그렇게 여깁니다.

셋째,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방인” 즉, 주님께 합류할 이방인의 경건함의 특징적인 표시로 명시적으로 언급됩니다. “주님께” 합류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안식일 지키는 의무와 축복이 고자와 이방인에게 속한 것으로 언급됩니다. 이것은 신약 교회의 두드러진 표시입니다. 이처럼 신약 교회에서 안식일 준수가 특징적인 특징을 형성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예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 준수가 특이한 강조로 세 번 반복될 뿐 아니라, 언약을 굳게 잡고 정의를 행하

거룩한 안식일

안식일은 “주의 날”이며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며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과 결부되어 안식일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하고 영구적인 약속과 함께 자리잡고 있음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2) 예수님의 개인적인 행동과 그 분의 선언으로 더욱 확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눅 4:16, 마 5:17, 마 24:20).

2. 안식일의 기독교화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므로 율법도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히 7:12).

‘언약이 바뀌었고, 그 목적이었던 안식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 바뀌었으므로 필연적으로 안식일도 바뀌어야 합니다’(존 오웬)

1) “여덟째 날”이 매우 두드러지는 구약의 유형에서 예시되었습니다.

기독교 시대에 관련된 모든 것처럼 매 주의 안식일이 주간의 마지막 날에서 첫째 날로, 즉 일곱째 날에서 여덟째 날로 바뀐 것은 다양한 유형과 그림자로 암시되었습니다. 창조 사역은 6일 만에 끝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그의 일을 쉬셨는데 이것으로 한 주, 즉 첫 번째 시간의 연속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덟째 날은 새로운 연속의 첫째 날이었고, 그 날에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머리로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여덟째 날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신 날, 그리고 그 기념으로 그의 백성이 안식해야 하는 날을 가장 분명하게 가리키는 방식으로 중요하게 표시됩니다.

① 할례는 여덟째 날에 아이들에게 시행되어야 했습니다(창 17:2).

② 여덟째 날이 되어서야 동물이 제물로 받아들여졌습니다(레 22:27).

③ 여덟째 날에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봉헌이 여러 의식 후에 완료되었습니다(레 9:1).

④ 여덟째 날에 죄를 상징하는 유출로부터 정결함이 있었습니다(레 15:29).

⑤ 여덟째 날에 더럽혀진 나실인을 위해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민 6:10).

⑥ 여덟째 날에 첫 열매의 곡식단이 받아들여졌습니다(레 23:11).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독특한 유형입니다.

⑦ 여덟째 날은 성전 봉헌식과(대하 7:9) 히스기야 시대의 성전 성결 예식(대하 29:17)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2) 신약에 기록된 내용에 의해 분명히 암시되었습니다.

① 첫째 날이 주님의 부활의 날이자 제

자들과 만나는 날이라는 것에 의해 분명히 암시되고 있습니다(요 20:19, 요 20:26).

②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주일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이 의식을 완성하고, 새롭게 제정된 기독교 안식일을 비준하신 것입니다.

③ 초대 교회는 주일을 기념했습니다(행 20:7, 고전 16:1-2, 계 1:10).

3) 히브리서 4장에서 결정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일(안식일 준수; Sabbatismos)이 남아 있다”

이 말씀에서,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그 분과 함께 들어가서 누릴 신성하고 영적인 안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 그것을 기념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는 수단이 되는 안식일이 복음 아래 남아 있었습니다.

셋째, 그것은 필연적으로 옛 언약 아래에서 시행되었던 것과는 다른 “다른 날”이어야 합니다. 특히, 9절에서 사용된 ‘안식’이라는 단어는 “Sabbatismos(안식일 준수)”라는 단어이며, 그 자체로 의미하는 바가 명확합니다.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 즉 그 분의 백성이 거룩하게 지키고 누릴 기독교 안식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안식일은 구약 시대에 걸쳐 지켜졌던 요일과는 “다른 날”에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참된 영원한 안식을 주셨고 그 분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그분의 안식).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이 기독교의 안식일이 분명합니다.

3. 안식일 준수

제 4계명의 글자 그대로를 엄격하게 고수하고 새 언약의 정신으로 그 계명을 우리 삶의 세부 사항에 적용한다면 이 문제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기본이며 가장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주의 날”이며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이 날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적인 활동을 함으로

써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룩은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깊게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날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기쁨의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시 118:24, 느 8:10)

사 58:13-14 :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

이것은 주로 복음 시대와 관련된 작은 구약 예언 중 하나입니다. 이 예언이 53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나타냅니다. 안식일에 여행과 육적 쾌락과 세속적인 관심사를 추구하거나 세상적인 오락에 참여하거나 헛되고 사소한 대화를 나누는데 보내시면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존귀히 여기며 지켜야 합니다. 그 리할 때, 풍성한 위로와 승리와 언약의 축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준비 없이는 이 거룩한 안식일을 제대로 유익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예비일 곧 안식일 전 날”(막 15:42)이라는 표현이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나오며 사복음서 모두에 실질적으로 나온다는 점은 주목할만 합니다. 마음과 정신의 적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마 24:20)

주님께서는 쾌락이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여행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앙과 위협의 시기에 그 날 여행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하게 도망쳐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건을 정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의 독특한 신성함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을까요!

많은 유익한 내용들을 건너뛰며 요약한다고 하였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직접 저서를 통하여 더욱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선교 세미나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서울 명륜교회와 성남에 있는 상대원교회에서 아시아 선교 세미나가 진행됐다. 아시아 선교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는 일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 많은 교회들이 폐쇄되거나 철거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구금되는 상황에 이르자 일부 목회자들이 목회 사역을 저버리고 교회를 이탈하는 등으로 교회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말씀으로 재무장시키고 선교 사명감을 고취시켜서 아시아 지역에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금번 선교 세미나를 위해서 아래의 표와 같이 많은 목사님들이 강의로 수고해 주셨으며, 또한 여러 교회들이 후원해 주심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명륜교회(박세덕 목

사)에서 5일 동안 숙식을 제공해 주었으며, 일산에 있는 누가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이신 한덕수 장로님께서 아시아에서 초청된 20명의 목회자 전원을 무료로 건강 검진을 해주었다.

강의 일정이 끝난 후에는 2박 3일간 국내 여행을 통해서 목회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아시아 목회자들은 33년 전부터 계신 교단에서 성경 학습으로 자신들을 양육해 주고 교회를 세워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었다. 그런데 이처럼 끝까지 자신들을 잊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큰 힘과 위로를 얻고 아시아 지역으로 돌아간다고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더욱 복음 전하는 사명에 충성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기사 유영길 목사

강의 시간표 (가나다 순)

고석남 목사(증경총회장)	교회론
권호 교수(합신대학원대학교)	설교학
김광호 목사(성산교회)	전도자의 기도와 영성
김현기 목사(동광교회)	전도자의 희생과 충성
박세덕 목사(명륜교회)	기독교 문화와 세속 문화
유영길 목사(상대원교회)	전도자가 가져야할 신앙 자세
이명희 사모(열린교회 사모)	선교에 대하여
탁지원 소장(현대 종교)	아시아 이단에 대하여
홍진욱 목사(임학성광교회)	전도자의 경건과 영성
홍한기 목사(예인교회)	바울 서의 구조적 특징

선교 세미나 후원 교회 (가나다 순)

가락동부교회(박항우 목사)	계신장교회(박천수 장로)
남부교회(한길주 목사)	동광교회(김현기 목사)
명륜교회(박세덕 목사)	백양교회(이청수 목사)
사당제일교회(최요승 목사)	상대원교회(유영길 목사)
서광교회(곽동식 목사)	성산교회(김광호 목사)
송탄북부교회(이용주 목사)	수성교회(이나라목사)
신정교회(이정행 목사)	안산북부교회(이용식 목사)
예인교회(홍한기 목사)	임학성광교회(홍진욱 목사)
평강교회(남성호 목사)	

충청노회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충청노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연합수련회를 개최했다. 제2회 청소년연합수련회는 2025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대전동구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으며, 주제는 "제자 우리의 이야기(다음은 너)"였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변화와 행위, 그리고 그들의 삶을 조명하며 오늘을 사는 제자들이 제자의

길을 따르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사로는 최요승 목사, 김성복 목사, 송기진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방한울 집사가 "청소년들의 중독예방"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또한 서광교회와 복용교회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찬양과 리더로써 수고했으며, 양 교회의 장로들이 귀한 간식을 후

원해 청소년들을 섬겼다.

수련회에는 학생과 리더, 목회자를 포함해 총 71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만족도조사 결과, 매우 만족 60%, 만족 38%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

큰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기사 김성복 목사

"제자, 우리들의 이야기 다음은 너!" 주제로 열려



2025년도 계신총회청년부연합수련회

"다시 복음으로"

「청년 세대 안에서 교회의 희망을 보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간 서울 명륜교회에서 청년 연합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수련회는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약 200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말씀과 찬양,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연합 수련회에는 가락동부교회, 명륜교회, 광흥교회, 도봉교회, 상대원교회, 서광교회, 성산교회, 송탄북부교회, 안산북부교회, 영화교회, 위례광명교회, 초월제일교회, 평강교회, 양의문교회, 백양교회 등 총 15개 교회의 청년들이 함께했다.

철저한 준비와 기도로 이뤄진 연합

수련회를 앞두고 교역자들과 청년 지도자들은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장소 배정, 숙소 및 사위실 안내, 주차 관리, 교제와 굿즈 준비, 보험 가입 등 세밀한 부분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 또한 온라인 기도회를 통해 모든 진행이 사람의 힘이 아

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뤄지도록 기도로 동원했다.

특히 명륜교회 전 공간이 열려 각 교회 청년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장소가 배정되었으며, 24개 이상의 소그룹 모임실이 활용되어 청년들이 깊은 나눔을 경험할 수 있었다.

말씀과 찬양, 그리고 헌신

수련회는 매일 말씀 선포와 찬양 집회로 채워졌다. 강사들은 시대 속에서 흔들리기 쉬운 청년들에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선포했고, 청년들은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응답했다. 특히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에 맞게, 이번 수련회는 인간의 열심이나 결단을 강조하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 서야 함을 깊이 되새기는 자리였다. 소그룹 나눔 시간에는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학업·직장·진로 속에서 복음을 불드는 삶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찬양은 연합 찬양팀이 섬겼으며, 모든 순서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섬김에 동참해 수련회의 모든 순간이 하나의 공동체적 예배가 되었다.

참가자들의 고백

참가한 한 청년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시 복음만이 내 삶의 기초임을 깨닫게 되었다. 바쁘고 흔들리는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서야 함을 깊이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청년도 "각 교회에서 모였지만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라는 것을 경험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싶다"고 고백했다.

연합의 열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은 다시 복음의 중심에 설 것을 다짐했으며, 서로 다른 교회에서 모였지만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연합의 기쁨을 누렸다. 또한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청년들이 서로 기도하며 지속적인 교제를 이어가자는 약속도 나눴다.

◆ 교단 청년 연합 수련회는 매년 진행되며, 이번 집회는 특별히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자리였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 세대 청년들이 더욱 굳건히 서서 복음을 불드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기사 김광원 목사

